

증오의 영

-심카 & 벨라 다비도브(Simcha & Bella Davidov)

한 미국인이 만든 반이슬람 영화 “ 무슬림의 무지(The Innocence of Muslims)” 로 인해 전세계적인 혼란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집트 출신의 미국인이 만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에서는 1 만 명의 무슬림이 미국 성조기를 태우고 짓밟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리비아 벵가지(Benghazi)에서는 미국 영사관을 공격하여 대사 및 세 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리폴리(Tripoli)에서는 KFC 매장이 방화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카이로(Cairo)에서는 수천 명이 미국 대사관 밖에서 “ 오바마, 오바마, 봐라. 우리는 모두 오사마들이다.” 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테헤란(Tehran)에서는 금요일 기도 이후 수천 명이 “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을 외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Jalalabad) 시 동부에서는 시위자들이 “ 미국에 죽음을” 이라고 외치며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강경파 무슬림들이 슬로건을 외치며 미국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수백 명이 이스탄불 베야지트(Beyazit) 광장에 모여 터키의 이슬람 주요 정당 사아데트(Saadet)가 조직한 시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이러한 증오를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 중동 국가들의 수천 명이나 되는 무슬림에게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증오는 저예산 유튜브 영화 하나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슬림이 만든 유튜브에 올라온 반유대주의적 거짓말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란의 TV 채널 1 은 반유대적 영화

“ 토요일 사냥꾼(Saturday Hunter)” 을 방영했는데, 이 영화에는 거친 눈매를 가진 한 랍비가 어린 손자에게 대량살상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을 타락시켜, 남자를 여자가 되게 하고 여자를 남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모함메드 카흐레마니(Mohammed Qahremani)가 감독한 이 영화는 작년에 제작되어 테헤란의 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이란 전역의 영화관에 개봉되어 왔습니다. 무슬림 세계에서는 이런 류의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영화가 종종 정부의 후원을 받은 매체에서 제작됩니다. 그러나 “ 이슬람 편향적인(Islamically correct)” 이종 잣대 때문에, 유대인(특히!)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슬람권의 훨씬 더 중상모략적이고 사악한 묘사에 대해 비이슬람권은 한마디도 뺄곳하지 못하는 반면, 이슬람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온건한 비판조차라도 하면 폭력 대응을 면치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여 이러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폴란드 아웃리치

-솔로몬 인트레이터(SI)

최근 몇 년간 저희 청년 그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방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넓혀왔고 유럽으로 단기 여행가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여섯 명이 유대 절기 동안 폴란드 남부로 가서 일주일 간 사역하며 전국 청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전도여행과 집중적인 개인기도를 합니다. 지금 폴란드 내부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 안에 있는 자유를 경험하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속죄일

아하발 예슈아 등 예루살렘의 몇몇 공동체에서 모인 지체들은 성경의 속죄일인
욘 키푸르를 지키기 위해 이번 9월 25-26일, 화-수요일에 야드 하쉬모나에서
모입니다. 저희는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금번
금식과 회개와 중보기도의 날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욘 키푸르는 토라의 제사력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이는 히브리 선지서의
“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 과 같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또 신약의 예슈아의 재림의 “ 그 날” 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마지막 때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일이 1973년 욘 키푸르 전쟁 발발로 인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방이 모여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 그
날” 의 예언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대속의 보혈

-아세르 인트레이터

예슈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가 나왔습니다(요
19:34). 그 피는 속죄일을 포함한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피의 희생 제사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이 피의 물리적 측면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메시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에는 타격이 있습니다. 궁극적 타격은
죽음과 형벌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타격도 있습니다. 예슈아의
보혈은 대속을 해줍니다. 죽음과 형벌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심리적 타격도 치유해 줍니다.

영적으로, 예슈아의 보혈은 영원합니다. 그 피에는 언제나, 심지어 현재에도 강력한 영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헬라이어: 프뉴마)과 혼(프쉬케)의 핵심부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롬 2:15). 양심 (수네이데시스) 은 우리에게 하나님 시각에서의 “ 도덕적 자각” 을 주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더러워졌습니다. 뒤틀린 바늘을 가진 나침반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롬 9:1).

예슈아의 보혈이 없다면 사람의 양심은 죄 때문에 들어온 죄책감을 쫓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오도된 노력은 종교 의식, 도덕적 상대주의, 방종, 독선, 자책, 끊임없는 심리상담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슈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서 모든 “ 죽은 행실” 을 씻어내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행복하고(롬 14:22) 담대한(요일 3:21)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욘 키푸르에 예슈아의 보혈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혼을 만지고 치유하게 하십시오.

9 월 유튜브 강의

영광의 왕: 예슈아께서는 영화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왕**을 바로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